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 매개효과

안희숙* · 도미향**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4차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5차 또래 상호작용, 4차 표현어휘력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SPSS 26, AMOS 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과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또래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 역시 또래 상호작용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셋째,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또래 상호작용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 상호작용을 직접 높여주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높아져 결국 또래 상호작용 역시 높아지는 완전 매개효과 결과가 검증되었다.

주제어 : 사회적 양육방식, 또래 상호작용, 표현어휘력, 한국아동 패널

논문 투고일: 2025. 05. 20. 최종심사일: 2025. 06. 13. 게재확정일: 2025. 06. 20.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남서울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o Mi Hyang, Room 610, Namseoul University Children's Welfare Center, 91, Daehak-ro,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20. E-mail: domi@nsu.ac.kr

I. 서론

통계청(2025)의 『2024년 인구 동향조사』에 따르면 첫째아 출생아 수는 14만 6,100명으로 전년 대비 7,700명(5.6%) 증가하였고, 둘째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동 자녀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영유아는 장시간을 보육기관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 결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정민경·장영은, 2023). 더불어 자녀 수가 적을수록 부모의 관심과 개입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유아는 또래와 자유롭고 자발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개별적인 놀이에 집중하거나 성인에게 의존하려는 행동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22).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아들의 생활 공간을 가정 중심으로 한정시키면서 또래 간의 놀이와 교류 경험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유아기는 사회성, 협동심, 감정 조절 능력, 양보 등의 사회적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또래와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시기 유아들은 중요한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고,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기초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의 또래 놀이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윤희진·천세정·이경옥, 2021). 이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주체로 발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전인적 발달을 이끄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Vygotsky(1976)는 놀이를 유아 발달의 근원적 요소로 보았으며 유아는 놀이를 통해 삶의 기반이 되는 결정적 기술과 사고 능력을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윤현숙,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놀이 기회의 축소는 유아의 사회 및 정서·인지적 발달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놀이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로 또래, 부모,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특히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 특성을 의미하며(최혜영·신혜영, 2011), 유아의 놀이 장면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김희태 외, 2014). 놀이 중에 나타나는 또래 상호작용은 단순한 사회적 접촉을 넘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윤현숙, 2007). 즉, 유아기는 자아 인식, 감정 조절, 협력,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 발달의 기초가 된다.

유아의 놀이는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보여주는 맥락을 제공하며(송영주, 2017),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성인과의 관계와 다른 수평적이고 균형적이고 동등한 관계 안에서 협력 또는 갈등 등의 대인관계 경험을 한다(이미란, 2015). 또한, Vygotsky(1976)는 또래 중 더 유능한 아동이 자연스럽게 스캐폴딩 역할을 하면서 발달을 촉진함을 강조했다. 즉,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조망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며 사회적 문제해결을 연습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한다(Rubin et al., 2006). 놀이에서의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 상호작용과 놀이 방해, 놀이 단절 등의 하위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Fantuzzo et al., 1998). 또래 놀이가 긍정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지면 ‘놀이 상호작용’이며, 반대로 ‘놀이 방해 및 놀이 단절’은 놀이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중단됨에 부정적이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옥분 외, 2011). 유아의 놀이특성(신은수·권미경·정현빈, 2010), 정서성(김희태 외, 2014; 권연희, 2012), 정서조절능력(이지희·김혜연, 2012; Rubin et al, 2006), 자기조절능력(남궁령, 2014; 황윤세, 2007), 기질(이미란, 2015), 다중지능(윤현숙, 2007) 등 개인요인이 연구되었다. 환경적 요인 중 부모와 교사는 유아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환경이다. 특히 유아는 발달 특성상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 사회성, 언어, 인지 등 전반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이정애, 2018). 부모는 유아에게 가장 근접한 양육자이자 초기 상호작용의 중심 주체로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부모라고 볼 수 있다(홍찬영·한성희, 2024).

어머니는 유아가 처음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의 중심인물로서 자녀의 일상적 양육은 물론 놀이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또래 상호작용 형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좋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유아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사회적 모델링이 되기에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송소아·남기원, 2017),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사회적 양육, 가르치는 양육, 한계설정 양육으

로 분류하고(Bornstein et al., 1996) 사회적 양육 행동을 어머니와 자녀 간의 사회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송소아·남기원, 2017). 사회적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애정, 민감성, 반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소아·남기원, 2017; 이선남·이경옥, 2015; 최인숙, 2015; Bornstein et al., 1996).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출생 후 조기에 보육기관에 참가하게 되는 양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보다 이른 시기부터 경험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놀이에서 또래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아기는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며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언어능력의 급성장기로 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통해 사고력 및 표현력이 발달한다. 유아는 또래 놀이 시 상호작용하면서 또래의 언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표현한다. 이때 주 양육자가 지원하는 풍성한 어휘는 유아의 언어를 향상시켜주며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형성되도록 돕는다(박애경·김보라·연규승, 2018). 또한, 유아의 명확한 언어표현은 놀이 시 갈등상황을 줄이고 놀이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 준다. 유아가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중요하며(Owens, 2013), 인지 및 사회정서 영역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성민·임정하, 2022). 특히 표현어휘력은 지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수민·박혜원, 2018), 또래와 놀이 상황에서 어휘력이 낮은 유아는 신체적 공격성이 높고(한세영·주지영, 2019),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이아영,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휘력은 유아가 또래와 놀이 상호작용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휘력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휘란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효, 또는 단어 전체를 의미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25). 즉, 이는 특정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수가 많을수록 어휘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어휘수가 적을 경우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박성민·임정하, 2022).

어휘력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으로 구분하였다(김영태·홍경훈·김경희, 2009). 수용어휘력은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특정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표현어휘력이란 의미와 맥락에 맞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기의 어휘력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휘력 발달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여아의 어휘력이 남아의 어휘력보다 우수하였고(임현주·최향준, 2017),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풍족할수록 (Johnston & Kamhi, 1984)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휘발달이 빠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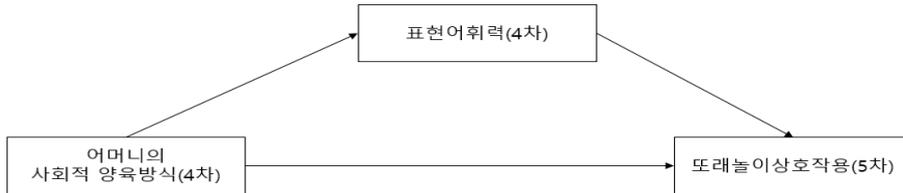
(이기숙 외, 2013)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소득 수준과 학력은 유아기의 어휘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 역시 자녀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의 문해 활동에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부모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어휘발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박성민·임정하, 2022). 또한,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유사할 수 있지만 어휘력의 발달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임현주·최향준, 2017).

양육 행동과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또래 놀이(이지영외, 2018), 사회적 유능감(백지숙·권은주, 2017), 유아의 문제행동(최은정·김은향, 2019), 사회적 기술(송주연·이선영, 2017), 어머니의 놀이 및 학습시간(정민경·장영은, 2023), 기질과 부모 양육방식 및 또래 놀이(송영주, 2017; 이미란, 2015)와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행동이 영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유아기 어휘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종속 변인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독립 변인으로 설정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박성민·임정하, 2022). 매개 변인이나 조절변인으로 설정된 연구 역시 매우 드물며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놀이와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휘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정민경·장영은, 2023)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수용어휘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표현어휘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표현어휘에 대한 관심과 탐색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력 중 표현어휘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간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매개하는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표현어휘력 매개효과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2,150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측 자료를 제외한 96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조사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의 표현어휘력 자료와 5차 조사의 또래 상호작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아	494	51.5
	여아	466	48.5
모 연령	20대	93	9.7
	30대	788	82.1
	40대 이상	79	8.2
모 학력	고등학교 졸	293	30.5
	전문대 졸 (3년제 이하 기능대학)	263	27.4
	대학교 졸 (4년제 이상)	361	37.6
	대학원 이상	43	4.5
전체		960	100.0

2. 연구 도구

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Bornstein et al.(1996)이 제작한 부모 양육방식 질문지(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를 사용하였다. PSQ는 사회적 양육 유형 9문항, 가르치는 양육 유형 5문항, 한계설정 양육 유형 3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사회적 양육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선정하여 지필식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적 양육 유형은 온정성과 반응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문항 내용으로는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 등이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용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중에서 평정하는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양육방식의 Cronbach’s a 신뢰도는 .873이었다.

2) 또래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Fantuzzo et al.(1998)의 척도를 최혜영·신혜영(2008)이 국내 아동에게 적용하여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육아지원기관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웹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래 상호작용 척도는 놀이 상호작용 9문항,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 단절 8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 상호작용 문항 내용으로 ‘친구를 돕는다’,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놀이 방해 문항 내용으로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차레를 지키지 않는다’, ‘선생님에게 이른다’ 등으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다룬다. 놀이 단절 문항 내용은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위축되어 있다’ 등이며, 위축 행동, 사회적 고립, 또래 거절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범위로 응답한다. 놀이 방해 문항 중 2개는 역채점하여 점수를 반영하였으며, 각 하위범주별로 또래 상호작용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는 놀이 상호작용은 .752, 놀이 방해는 .845, 놀이 단절은 .800으로 나타났다. 또래 상호작용 하위영역을 포함한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0.882이었다.

3) 표현어휘력

본 연구에서는 김영태 외(2009)가 개발한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어휘력은 총 18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사별로 명사 106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가 포함된다. 표현어휘력은 유아가 그림을 보고 검사자의 질문에 해당하는 어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며, 적절히 응답한 어휘의 수가 어휘력 점수로 환산된다(박성민·임정하, 2022). 어휘력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아동이 적절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표현어휘력이 풍부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검사는 생활연령에 따라 시작 문항을 다르게 설정하며, 기초선이 확립되면 점차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검사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는 4차(2011년)에 수집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표현어휘력 자료를 종속변수로는 5차(2012년)에 수집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수인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1년 전의 특정 사건이 1년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종단적 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허미경·도미향, 2025).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SPSS 26과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의 분포 특성과 정규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수인 표현어휘력을 매개로 종속변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 및 표현어휘력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적 양육방식의 평균은 3.79(SD = .49), 표현어휘력 백분위의 평균은 4.88(SD = 3.26), 또래 상호작용의 평균은 3.14(SD = .34)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각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05).

<표 2>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양육방식	1.89	5.00	3.79	0.49	-0.04	0.29
표현어휘력백분위	1.0	11.0	4.88	3.26	0.40	-1.29
또래 상호작용	1.97	3.93	3.14	0.34	-0.43	0.18

2.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 또래 상호작용 및 표현어휘력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양육방식은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08, p<.01$),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 역시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081, p<.05$). 반면, 사회적 양육방식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 상호작용을 직접 향상시키기 보다는, 표현어휘력의 매개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 상관분석

	사회적 양육방식	표현어휘력 백분위	또래 상호작용
사회적 양육방식	1		
표현어휘력 백분위	.108**	1	
또래 상호작용	0.061	.081*	1

* p<.1, ** p<.01

3.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도(df)가 0인 포화모형으로 나타나 해당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도가 0인 경로 분석의 경우 포화모형으로서 모형의 적합도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모형의 자유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FI, TLI 등의 일반적인 적합도 지표는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석을 자유도 0인 포화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변수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양육방식은 표현어휘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108, p<.001$), 표현어휘력은 또래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75, p<.05$).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 매개효과 분석

경로	B	S.E.	β	C.R.	p
사회적 양육방식 → 표현어휘력	0.72	0.215	0.108	3.35	0.000
표현어휘력 → 또래 상호작용	0.008	0.003	0.075	2.326	0.02
사회적 양육방식 → 또래 상호작용	0.037	0.023	0.053	1.644	0.1

반면 상관관계 분석과 유사한 결과로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완전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Bootstrapping-test를 실시한 결과

Bootstrap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또래 상호작용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5 > 매개효과 유의성

매개효과	Standardized Estimate(β)	Bootstrap 하한값(LLCI)	Bootstrap 상한값(ULCI)	p
		0.008	0.001	0.018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관계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횡단분석에서는 같은 시점의 변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허미경·도미향, 202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4차에 수집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표현어휘력 자료를 바탕으로 1년 뒤인 5차에 수집된 또래 상호작용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변화를 예측하는 요소들에는 유아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에서 예측 변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이희정, 2018),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아가 또래와 친화적이고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유아가 또래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언어발달이 이루어졌음을 유

추할 수 있다(임현주·최향준, 2017). 또한,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그 역할을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표현어휘력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양육 행동 자체 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Kochanska et al., 2004). 또한, 어머니의 양육 유형이 13개월 자녀의 발달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이형민 등, 2008). 이 연구는 양육 유형보다는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맥락에 맞는 규칙과 관찰을 통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일시적인 양육 행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에게 적절한 사회적 규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양육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송영주, 2017).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 정책이 있지만, 장시간 근로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로 인해(김소영·김미정, 2016) 자녀의 교육과 발달적 지원은 교육, 보육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과 기관 간의 연계 강화와 더불어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부모 대상의 언어·사회성 발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육 정보 접근성 확대, 직장 내 부모교육 지원체계 마련 등이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기관이 유아 발달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유아의 표현어휘력 백분위 점수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도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김영실·신애선, 2013)와 일치한다. 즉,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유아의 탐색과 모방을 촉진하는 환경 제공, 사물과 사건의 특성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언어 자극, 권위에 대한 존중과 규칙 준수 지도, 환경의 구조화 등은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양질의 시간이 유아의 사회성 및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김세리·이강이, 2018)와도 일관된다.

또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표현어휘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평가한 3세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3세 및 5세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장유진, 2018)와 일치한다. 이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이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횡단적 및 종단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어휘력 향상에 기여하며 높은 수준의 어휘력은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반대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유아는 어휘 노출 기회가 적어 어휘력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가 문화적 도구이자 심리적 도구로서 기능하며, 이 두 측면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한다는 Vygotsky(1976)의 이론적 주장을 지지하는 바이다. Vygotsky는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셋째,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표현어휘력은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정민경·장영은, 2023). 또한, 표현어휘력은 놀이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놀이 단절 및 방해가 적게 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성민·임정하, 2022). 어머니와 교사가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평정한 또래 상호작용 수준이 3세 당시뿐만 아니라 5세 시기의 표현어휘력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력에 횡단적일 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유진, 2018). 많은 연구자는 언어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해 왔다(박애경 외, 2018; 정윤이·황혜정, 2013; Conte et al., 2018).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표현어휘력의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유아가 친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휘력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민경·장영은, 2023). 이는 유아의 사회적 발달 및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서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향상되며, 그 결과 또래 놀이 상호작용 역시 향상되는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언어능력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제시하며, 향후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표현어휘력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4차(2011년)에 수집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5차(2012년)에 수집된 또래 상호작용, 그리고 4차(2011년)에 수집된 유아의 표현어휘력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해당 자료는 연구 당시의 가족 구조, 양육 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며 부모의 양육방식, 유아의 또래 경험, 디지털 매체 활용 빈도 등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의 표현어휘력 발달과 또래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한국아동 패널(Korean Children Panel) 데이터를 활용한 단기 종단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과 관련된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발달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 과정 중 생애 초기 약 3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로, 언어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언어능력은 이전의 영아기뿐만 아니라 이후 아동·청소년기의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유아기의 표현어휘력 발달과 그 관련 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표현어휘력에 한정된 결과로 수용어휘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용어휘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표현어휘력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는 성별에 따른 인구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 유형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아

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놀이 방해나 놀이 단절 행동이 여아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여아는 언어발달 측면에서 남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현주·최항준, 2017). 이러한 성별 차이는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질과 양 모두에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행동, 표현어휘력 간의 관계를 성별 및 출생순위와 같은 아동의 개인차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발달 이해와 함께, 성별에 따른 맞춤형 양육 및 교육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방식 중 사회적 양육방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양육, 가르치는 양육, 한계설정 양육을 포함한 보다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양육방식 척도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표현어휘력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아의 어휘력과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2025).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권연희(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김세리 · 이강이(2018).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3), 1-19.
- 김소영 · 김미정(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 삶의 질연구**, 34(5), 1-19.
- 김영실 · 신애선(2013). 6~25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의 발달 및 기질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519-539.
- 김영태 · 홍경훈 · 김경희(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개발연구: 문항개발 및 신뢰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4(1), 34-45.
- 김영태 · 홍경훈 · 김경희 · 장혜성 · 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지침서.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희태 · 김정림 · 이임순 · 남연정(2014).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34(2), 29-48.
- 남궁령(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유아 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박성민 · 임정하(2022). 유아기 어휘력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특성 고찰: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2(1), 235-265.
- 박애경 · 김보라 · 연구승(2018). 유아의 놀이성과 인지능력, 언어능력,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2(6), 337-357.
- 백지숙 · 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 서수민 · 박혜원 (2018).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 어휘력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장애학회지**, 9(3), 51-67.
- 송소아 · 남기원(2017).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기질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1(5), 325-349.
- 송영주(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간 관계에서 유아 기질요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2), 57-79.
- 송주연 · 이선영(2017). 또래 놀이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역할: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5), 507-531.
- 신은수 · 권미경 · 정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육아정책연구소(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 윤희진 · 천세정 · 이경옥(2021). 유아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 아동학회지**, 42(5), 629-640.
- 윤현숙(2007).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다중지능 그리고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1(4), 389-405.
- 이기숙 · 김순환 · 정종원 · 김민정 (2013). 만 5세 읽기능력, 어휘력 및 개인·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유아교육연구**, 33(4), 363-384.
- 이미란(2015).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91-214.
- 이선남 · 이경옥(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 이아영(2020). 취학전 유아의 어휘능력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 김혜연(2012). 유아기 긍정적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 이지영 · 고보선 · 최진이 · 성지현(2018).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온정적 양육행동,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또래 놀이행동 간의 구조모형분석. **유아교육연구**, 38(2), 501-527.
- 이정애(2018). 부모-자녀상호작용과유아친사회적행동및공감능력과의관계연구:공감능력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형민·박성연·서소정(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희정(2018).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중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4(3), 387-408.
- 임현주 · 최향준(2017). 유아의 개인변인, 타인 (부모, 가족, 또래, 교사) 과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237-259.
- 장유진 (2018).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만 3세의 또래상호작용이 만 3세, 만 5세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2(4), 123-140.
- 정민경 · 장영은(2023). 어머니와의 놀이 및 학습시간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8(3), 373-392.
- 정옥분 · Rubin, K. H. · 박성연 · 윤중희 · 도현심 · 김경은 (2011).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인간발달연구**, 18(1), 151-168.
- 정윤이 · 황혜정(2013).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5-23.
- 최은정·김은향(2019).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특성이 학업능력과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1). 1333-1353.
- 최인숙(2015)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36(6), 147-164.

- 최혜영 · 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혜영 · 신혜영(20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또래놀이행동 척도의 타당화. **아동학회지**, **32**(2), 35-52.
- 통계청(2025).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잠정).
- 한세영 · 주지영 (2019). 유아기의 어휘력과 신체적 공격성 간의 상호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5), 23-45.
- 허미경 · 도미향 (2025).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87-109.
- 홍찬영 ·한성희(2024). 부모효능감과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과의존과 어머니-유아 놀이상호작용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4), 31-56.
- 황운세(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M., Galperín, C. Z., & Pecheux, M. 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onte, E., Grazzani, I., & Pepe, A.(2018). Social cognition, language, and prosocial behaviors: A multitrait mixed-methods study in early childhood.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9*(6), 814-830.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 Sutton-Smith, B.(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 105-120.
- Johnston, J. R., & Kamhi, A. G. (1984).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of the utterances of language-impaired children: The same can be less. *Merrill-Palmer Quarterly*, *30*(1), 65-85.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ochanska, G., Aksan, N., Knaack, A., & Rhines, H.(2004).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conscience: Early security as moderator. *Child Development*, *75*, 1229-1242.
- Owens, R.(2013). Language development. 언어발달. 이승복, 이희란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ubin, K. H., Bukowski, W., & Parkr, J.(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 3 social, emotional, and persnality development* (6th ed, pp.571-645). New York: Wiley & sons.
- Vygotsky, L. S.(1976). *Play and its role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pp.537-554). NY:Basic Book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Expressive Vocabulary in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Social Parenting Style and the Child's Peer Interaction

Ahn, Hee sook* · Do, Mi hyang**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xpressive vocabula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and infant peer interaction. To this e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on the 4th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5th peer interaction, and 4th expressive vocabulary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6 and AMOS 22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and peer interaction. Second, the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ha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expressive vocabulary percentile score, and the expressive vocabulary percentile score had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er interaction. Third, infants' expressive vocabulary completely mediated the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and peer interaction.

Although the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does not directly increase peer interaction, the higher the level of the mother's social parenting method, the higher the infant's expressive vocabulary, eventually increasing peer interaction.

Keywords : social parenting method, peer interaction, expression vocabulary, Korean children's panel

* Doctorate Course, Child Care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